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조주 스님이 어떤 학승에게 물었다.  
“자네는 <법화경>을 읽은 일이 있는가?”  
학승이 말했다. “있습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경속에 ‘납의(衲衣)를 입은 승려가 한적한 곳에 살면서 거저 아난야(阿練若; 적정처)로 세상 사람을 속인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자네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학승이 짐짓 예배하는 척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자네! 납의를 입고 왔는가?”  
학승이 말했다.  
“입고 왔습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나를 속이지 말게.”  
학승이 말했다.  
“어떻게 해야 속이지 않는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스스로 살아갈 계책을 세워라. 내 말에 붙어 다니지 말고.”

師問僧 你曾看法華經麼 云曾看 師云 經中道 衲衣在空閑 假名阿練若 誑惑世間人 你作麼生會 僧擬禮拜 師云 你披衲衣來否 云披來 師云 莫感我 云如何得不感去 師云 自作活計 莫取老僧語

학승이 ‘예배하는 척(擬禮拜)’ 한 것은 적정처를 얻은 척하는 모양을 보인 것이다. 이것은 법화경 문장의 뜻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천하장부는 부처나 조사를 따라 다니지 않는다. 자기의 색깔, 자기의 교화를 펴야 부처와 조사가 기뻐한다.

조주 스님이 좌주에게 물었다.  
“어떤 학업을 익히고 있는가?”  
좌주가 말했다.  
“유마경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조주 스님이 물었다.  
“유마의 조부는 누구인가?”  
좌주가 말했다. “저입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어찌하여 거꾸로 손자의 말을 강의하는가?”  
좌주는 대답이 없었다.

師問座主 所習何業 云講維摩經 師云 那箇是維摩祖父 云某甲是 師云 爲什麼卻爲兒孫傳語 主無對

유마의 조부가 누구인가 물었을 때 “저입니다”라고 말한 것까지는 좋은 대답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거꾸로 손자의 말을 강의하는가?” 라는 물음에는 대답을 못했으니 공연히 선을 아는 척하다 한 방망이 얻어맞은 꼴이다. 말로써 선사를 이기려하면 안 된다. 참선을 오래하면 논리도 넘어가고 직관도 넘어가는 달관자가 되기 때문에 어설픈 논리로 선사를 이겨낼 수 없다.

조주 스님의 마지막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묘해야 한다. 논리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쪽저쪽을 다 넘어서 자기

의 말이 튀어나와야 한다. 납의를 속이지 않는 천하의 남자들이여! 이때에 뭐라고 해야 조주를 넘어뜨리겠는가? 본 납자라면 “나는 단지 내 말을 할 뿐입니다”라고 말하겠다.

조주 스님이 하루는 법당에 올라갔다.  
한 학승이 나와서 예배하자 스님은 합장하고 ‘안녕히!’ 하고 말했다.  
또 어느 날 한 학승이 예배하자 조주 스님이 말했다.  
“잘 물어보아라.”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선(禪)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오늘은 흐렸으니 대답하지 않겠다.”

師一日上堂 僧纒禮禮拜 師乃合掌珍重 又一日僧禮拜 師云好好問 云如何是禪 師云今日天陰不答話

조주 선사는 자비심이 많아서 물으면 친절하게 대답해 준다. 단지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조주 선사의 잘못이 아니다. 조주 선사의 답은 명확하다. 어느 때는 그 이상 그 이하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초심자가 못 알아들어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무엇이 선(禪)인가 물었는데 조주 선사는 “오늘은 흐려서 대답하지 않겠다”고 했다. 명확한 대답이다. 그런데 내일 날씨가 맑아진다면 과연 대답할까?

무불선원 선원장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49



### 내게는 머리에 이런 것이 생겨났다. 수명을 갹아먹는 하늘의 심부름꾼이 나타난 것이다.

(본생 이야기(자타카))

백세시대라는 말이 있다. 백세라니, 내게는 머리에 이런 것이 생겨났다. 수명을 갹아먹는 하늘의 심부름꾼이 나타난 것이다. 지금 이야말로 집을 나설 다시없는 기회가 아닌가?

백세시대라는 말이 있다. 백세라니, 내게는 머리에 이런 것이 생겨났다. 수명을 갹아먹는 하늘의 심부름꾼이 나타난 것이다. 지금 이야말로 집을 나설 다시없는 기회가 아닌가?

첫 번째의 직업생활에서 은퇴한 이후에도 다시 재취업이나 창업 등으로 일을 하여서 다소라도 수입을 올리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일을 한다는 것은 몸을 움직인다는 것이어서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사회적인 보람을 찾음으로써 다시 건강에도 기여하게 되는 선순환(善循環)을 그리는 점이 더욱 중요하다.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오래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노후대비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 같다. 다시금 재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해야 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이다.

이러한 이야기는 사실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다. 나같은 사람이 말할 수 있는 문제는 따로 있으리라. 생업을 위한 노동 이외에 노년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노동을 하든 안 하든 노년이 온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불교의 기본적인 입장은 사실 노후대비를 준비하는 맥락에서 하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 “노후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 말이다. 비데하(Videha) 왕국의 왕 미틸라(Mithila)는 평소 이발사에게 부탁해 둔 말이 있었다. 새까만 머리카락 사이에 흰 머리카락이 나올 때는 반드시 알려달라는 것이었다. 그때부터 노후의 삶을 살겠다는 결심이 서있었기 때문이다. 어느날, 드디어, 마침내 왕의 머리에

는 흰 머리카락이 생겨났다. 이발사가 즉시 상봉보고를 했음은 물론이다. 이에 왕은 결단을 내린다. 흰 머리카락을 뽑아내고 말했는 것이다. “내게는 머리에 이런 것이 생겨났다. 수명을 갹아먹는 하늘의 심부름꾼이 나타난 것이다. 지금 이야말로 집을 나설 다시없는 기회가 아닌가?”

주의해야 할 것은, 불교에서는 흰 머리카락이 생기기도 전부터 ‘수명을 갹아먹는 하늘의 심부름꾼’이 오는 것으로 말한다. 그래서 ‘시다르타 태자는 노후, 즉 흰 머리카락이 생기기도 전에 출가의 길로 들어섰던 것 아닌가. 그렇게 시간의 유예를 두지 않았다



그림 · 박구원

는 점은 출가의 본질을 해명하는 데 핵심적 사실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우리 재가자의 입장에서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생기고 나서라도, 즉 노후가 되어서라도 ‘집을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인도전통에서 ‘집을 나선다’는 말은 출가를 의미한다. 몸이 편해지고 싶어지는 노후에 고행(苦行)의 길에 들어선다는 것, 그러한 전통이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재가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재가의 생활을 유지하더라도 수행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는가. 부처님께서도 과거세에 그러한 노후수행을 쌓은 공덕으로 금생에 이르러 부처님이 되셨노라, 말씀하시고 있지 않은가. 수행하는 노후생활, 불교가 추천하는 또 하나의 노후대비다.

(이미명 옮김 <붓다의 과거세 이야기>, 민족사, p.224참조)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주성원의  
기초 교리 (44)

수행도 - 총론

### 번뇌 벗어나는 수행내용 시대별로 달라

불교는 번뇌로 괴로워하는 중생들의 의지처로서의 종교이기도 하면서 매우 심오한 철학체계를 갖추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부처님이 45년간의 설법을 통해 중생을 깨우치고자 한 뜻은 단지 불교의 철학적이고 교학적인 사상을 가르치려는데 있었던 것만은 아니다. 그보다는 자신이 그랬듯이 중생들도 개개인이 스스로 마음의 움직임을 통찰하고 행동을 다스려 번뇌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다. 팔만사천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가르침들은 모두 이를 위해 설해진 것이다. 바로 이점이 원시불교와 아비달마 불교, 그리고 대승불교 시대에 이르기까지 불교의 수행도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각 시대별로 수행도의 내용이 완전히 동일했던 것은 아니다. 원시불교나 아비달마 불교에서 수행도는 자신의 완성을 위한 것이었던 반면에 대승불교에서는 자신보다는 타인의 구제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처음 역사적인 부처님이 설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원시불교시대와 원시불교의 경전들에 해석과 주석을 더해 감으로써 대단히 교학적이고 학문적인 철학체계를 확립한 아비달마 불교시대에서 수행도는 삼십칠보리분법(三

七菩提分法)으로 대표된다. 삼십칠보리분법은 사념처(四念處)·사정근(四正勤)·사신족(四神足)·오근(五根)·오력(五力)·칠각지(七覺支)·팔정도(八正道)를 말한다. 이 숫자를 전부 합하면 37가지가 된다. 이들에 대해서는 다음 회부터 하나하나 설명하겠지만 팔정도는 앞 회에서 이미 설명했으므로 제외하기로 한다.

또한 사념처는 팔정도 중의 정념(正念)이고 사정근 역시 팔정도 중의 정정진(正精進)에 해당함으로 이에 대한 설명 역시 생략하기로 한다.

원시불교경전에서는 본래 삼십칠보리분법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형태의 다양한 수행도가 설해져 있었는데 그 이유는 부처님의 설법방식이 상대방의 이해도나 성격, 그리고 처한 상황에 따라 방법을 달리해서 설명하는 대기설법(對機說法)이었기 때문이다. 삼십칠보리분법도 이와 같이 여기저기 설해져 있던 것을 아비달마불교시대에 정리해서 체계화 한 것이다. 그런데 아비달마 시대에 이르자 부처님이 성도 이후에 열반에 드시기 전까지 평생을 중생을 위해 교화하고 설법했던 실천수행의 의미가 점점 퇴색해 가기 시작했다. 이 시대의 출가자 들은 부처님의 설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불교를 학문적으로 접근했고 수행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을 구제한다는 의미보다는 자신의 완성에

집중하게 되었다. 아비달마 불교의 이러한 성격은 불교의 본래 의미로 되돌아가 부처님의 참뜻을 실천하자는 대승불교가 일어나는 계기가 됐다.

대승불교시대에서는 자신의 깨달음 보다는 다른 사람의 구제에 무게중심을 두었고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곧 자신의 깨달음을 위한 수행도라고 하는 대승보살사상이 생겨나게 됐다. 그 수행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육바라밀(六波羅蜜)이다. 여기에 네 가지를 더해 십바라밀(十波羅蜜)로 설명되기도 한다. 육바라밀의 바라밀은 범어 ‘빠라미따(paramita)’의 소리 그대로를 번역한 말로 번뇌에 가득 찬 중생세계인 이곳[此岸]에서 깨달음 열반의 세계인 저곳[彼岸]으로 건너는 의미를 담고 있다. 말하자면 보시(布施)·지계(持戒)·인욕(忍辱)·정진(精進)·선정(禪定)·지혜(智慧)의 여섯 가지 실천수행을 통해 자신과 타인을 모두 깨달음에 이르도록 한다는 의미이다. 이 중에 지혜는 팔정도의 정견(正見)과 정사유(正思惟)에 해당하고 지계는 정어(正語)·정업(正業)·정명(正命)에 해당하며 정진은 정정진(正精進)에 선정은 정념(正念)과 정정(正定)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육바라밀은 팔정도에 보시와 인욕이라고 하는 대승적 실천행이 추가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日 용곡대 불교학석사 · 前 本지기사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아름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돌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자용품 안전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 열침의효능 헬스벨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복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마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가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현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개, 오추베개등 자매품다양)

-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서냉
- \*오심건, 고관절, 당뇨, 전립선
-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